

이달의 초점

한국의 사회불안 인식과 사회보장의 과제

청년의 사회불안과 공정성 불안 인식

|곽윤경|

중년의 이종과업 부담과 사회불안 인식: 가족돌봄과 노후준비를 중심으로

|변금선|

노인의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불안 인식

|이아영|

사회불안 인식의 코호트 간 비교

|구혜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불안 인식의 코호트 간 비교¹⁾

Comparing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cross Different Cohort Groups

구혜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이 글은 출생 코호트별로 한국 사회에 만연한 사회불안 인식의 기저에 있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사회불안 인식을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으로 구분하여 코호트 간 사회불안 인식의 특징과 설명 요인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코호트에서 공통으로 빈부격차의 심화와 정부 위기 대처 능력에 대한 불신, 또는 정부 불신이 사회불안 인식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 드러났다. 또한 체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불안이 모든 코호트에서 높게 나타났다. 코호트별로 차이도 발견되었는데 1970년대 중반 이전의 코호트에서는 체계 불안이, 1970년대 중반 이후의 코호트에서는 생활세계의 불안이 전반적인 사회불안 수준과 연관성이 높았다. 사회불안 인식은 개인 삶과 사회 체계의 변화로 이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인 관심의 대상이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 사회불안 인식을 심화시키는 핵심 요인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강화하고 사회불안과 사회경제적 지위, 심리적 불안, 다양한 부정적 사회 경험 등의 중첩적인 연결고리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회불안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1 들어가며

한국 사회에 불안이 만연하고 있다. 한국인 4명

중 3명은 일상적으로 삶에서 불안을 느끼고, 5명

중 4명은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한다.²⁾ 사회

불안 인식은 개인의 감정을 넘어 사회의 위험 수준

1) 이 글은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구혜란, 변금선, 전지현. (2023).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장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이다.

2) 삶의 불안은 엠브레인 공식 블로그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불안감’, 몇 년째 높은 수준에서 유지”(<https://m.blog.naver.com/>

또는 사회안전망의 취약함을 드러내는 주관적인 지표일뿐 아니라, 그 자체로 개인의 삶과 사회 구조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사회불안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불안은 개인이 경험하는 위험에 대한 심리적 반응(홍영오 외, 2006, p. 131)이라 정의된다. 여기에 '사회'라는 수식어가 붙는 '사회불안'은 두 가지 면에서 심리적 불안과 구별된다. 하나는 그러한 심리적 반응의 기원이 사회 구조와의 관계 또는 사회적 사건에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반응이 다수의 사회 구성원 사이에서 공유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심리적인 반응 또는 주관적 인식은 개인과 분리된 외부 세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이라기보다는 개인의 과거 경험과 기억,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전망 등과 복잡하게 얽혀서 드러나는 일종의 정신적 시뮬레이션의 결과(배럿, 2018)이다. 사회불안은 그래서 사회 구조와 변화, 그리고 이에 의미와 해석을 부여하는 개인의 서사가 결합된 구성물이다.

사회불안은 사회의 작동방식과 사회변화의 양상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근대사회 이후의 사회 변화는 체계와 생활세계의 변화를 포괄한다. 체계가 화폐와 권력을 매개로 제도화된 규칙들의 체계로 '개별 행위자들에 의해서 의도되지 않은 기능적 맥락'(최재식, 1999, p. 194)을 구성하는 세계라면

생활세계는 삶의 경험에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개인의 내면화된 측면과 개인 간 상호작용의 장이다. 근대사회를 특징짓던 표준적이고 동질적인 삶의 궤적은 체계의 유연화 과정과 맞물려 탈표준화, 개인화되고(남춘호, 2014; 황정미, 2022), 개인은 불안정한 사회 구조 안에서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해 스스로 안전망을 구축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현대사회 불안의 기저에는 이러한 사회 변화와 맞물려 거시적인 수준에서 국가와 경제체제의 불안정성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 삶에서의 통제감 상실과 실존적 불확실성이 자리하고 있다(김문조, 박형준, 2012).

사회 내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개인의 서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결이 존재한다. 성, 연령, 사회적 지위 등은 사회 변화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차별화하는 대표적인 구조적 요인이다. 이 글에서는 연령과 생애주기, 그리고 사회적 시간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출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사회불안 인식의 특징을 살펴본다. 출생 코호트는 동시대에 태어나 비슷한 생애주기를 거치면서 비슷한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사회 변화의 경험과 개인의 생애사가 교차하며 인식과 태도, 가치 등의 측면에서 동질성을 갖게 되는 집단이다. 이런 코호트 내 동질성은 사회불안 인식의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코호트 간의 이질적인 경험이 사회불안 인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탐색

mkresearch/220719145055)에서, 사회불안은 이현주 외(2023)의 '2020~2022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 통합데이터를 분석하여 얻은 결과이다.

하는 것이다. 특히 출생 코호트별로 사회불안 인식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이며, 체계와 생활세계로 구분되는 사회불안 인식의 영역에서 코호트별 사회불안 인식과 이를 설명하는 요인들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2 코호트 구분과 사회불안 인식의 측정

가. 코호트 구분과 특성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의 통합 자료이다. 이 자료에는 사회불안 인식의 다면적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24개 문항과 사회불안 인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수의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³⁾ 이 조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3개의 연령집단(19~44세, 45~64세, 65~74세)을 나누어 수행되었다. 65~74세는 면접조사로, 다른 두 연령집단은 온라인조사로 진행되었다. 이 때문에 이 자료는 조사 시점과 방식의 차이로 인한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 건의 자료를 통합할 때 센서스 기준 3년간의 성, 연령, 지역 집단 구성 평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이를 가상 시점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인구 집단의 대표성에 문제가 없도록 조정하였다. 또한 신뢰할 만한 기준 인식 조사의 응답 패턴과 비교하여 통합

한 자료 응답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코호트 구분은 연차별로 수집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편향을 줄일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시점에 조사된 연령집단 구분은 유지하되 코호트로서 동질적인 사건과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연령집단을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다시 세분하였다. 분석의 기준이 된 코호트는 출생 연도 기준으로 1947~1956년생, 1957~1967년생, 1968~1975년생, 1976~1985년생, 그리고 1986~2001년생 코호트 등이다.

각 코호트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7~1956년생 코호트(이하 코호트5)는 2022년 기준으로 65~74세 연령집단인데, 전후 경제성장이 시작되는 시점에 노동시장에 진출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경제의 급속한 성장을 경험하며 30대를 보낸 세대다. 이들은 중장년기에 외환위기를, 은퇴 전후로 금융위기를 경험하였으나 은퇴하는 시점에 미흡한 노후 보장체계에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노인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1950년대생 이후는 저소득·저자산 비율이 현저히 낮아져서(안준기, 2022) 이전 세대보다는 은퇴 후 형편이 나아진 세대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1957~1967년생 코호트(이하 코호트4)는 2022년 기준 55~64세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로 고성장과 자유의 혜택을 누리며 청년기를 보낸 세대이다. 또한 산업화와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3) 자료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자료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현주 외(2023년)의 보고서 2장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준적인 생애 이력을 공유한 세대로 이들이 장년기에 있을 때인 1998년 전후에는 30대 후반 남성의 경우 대다수가 노동시장에 진입해 있었고, 배우자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형성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1968~1975년생 코호트(이하 코호트 3)는 2022년 기준 45~54세 연령집단으로 민주화 이후 청소년기를 보내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에 외환위기를, 장년기에 금융위기를 경험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유연화와 저성장 등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한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재생산 영역에서도 남성의 취업 준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인해 결혼이 지연되고 가족 구성 면에서 탈표준화 현상이 나타나는 세대이다. 또한 자

녀 독립의 지연과 고령화로 인해 생애주기 면에서 본인의 은퇴 준비와 양육, 돌봄의 이중 부담을 지고 있는 집단이다. 네 번째 코호트는 1976~1985년생(이하 코호트2)으로 2022년 기준 35~44세인 집단이다. 이들은 대학 교육이 보편화된 시기에 청년기를 보내 80%가 대학 학력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이다. 이들은 외환위기 때 10대, 금융위기 때 20대를 보냈다. 그리고 이후 경제성장 악화로 취업난을 겪은 세대이기도 하다. 대학 교육을 받은 여성의 증가로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활발해짐에 따라 남성 1인 생계부양 규범이 약화되고 여성 가구주가 증가하는 경험을 공유한다. 이들이 30대 중 후반인 시점에 이 연령대의 여성 유배우의 비중이

[표 1] 코호트의 사회인구학적, 사회적 경험 특징

코호트 연령	사제 수 (건)	여성	균등화 가구 소득(원)	불안정 근로	대졸 학력	심리적 불안	사회 신뢰	박탈 경험	차별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복지 수혜 경험
1. 19~34세	2,060	.47	273.3	.29	.61	2.05	2.82	.51	.97	.55	.40
2. 35~44세	1,459	.49	273.5	.14	.84	2.00	2.90	.74	.92	.70	.45
3. 45~54세	1,653	.50	310.1	.16	.76	1.93	2.80	.61	.75	.75	.22
4. 55~64세	1,569	.50	335.1	.21	.69	1.84	2.82	.58	.72	.71	.20
5. 65~74세	952	.52	298.7	.11	.11	1.87	3.17	.38	.54	.60	.70
Total	7,692	.49	297.0	.19	.64	1.95	2.87	.57	.81	.66	.37

주: 1) 불안정 근로는 현재 주된 경제활동 참여 상태가 임시직, 일용직, 실업자인 경우, 박탈 경험은 건강, 교육, 돌봄, 주거 면에서 한 문항에서라도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차별 경험은 성, 연령, 장애, 외모, 학력, 직업, 소득 및 자산, 지역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사회적 사건 경험은 외환위기 또는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또는 정서적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복지 수혜 경험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학비 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 등 정부 지원 문항에서 한 문항이라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를 말함.

2) 여성, 대졸 학력, 불안정 근로, 박탈 경험, 차별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 복지 수혜 경험은 전체 응답자 중에서 각 범주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비율을, 심리적 불안은 중(Zung)의 자기평가 불안척도(SAS: Self-rating Anxiety Scale)의 20개 문항에 대해 4점 척도(1=그렇지 않다~4=항상 그렇다)로 질문한 문항을 종합하여 평균을 낸 값을, 사회 신뢰는 우리 사회를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지를 5점 척도(1=전혀 믿을 수 없다~5=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로 묻는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냄.

출처: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이현주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6. <표 4-5> 재인용.

본격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1986~2001년생 코호트(코호트1)는 2022년 기준 19~34세로 민주화 이후에 태어나 유년기에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등 두 차례의 위기를 겪었으며 어느 세대보다도 고학력에 고스펙을 가진 세대이지만 현재 최악의 취업난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다.

‘한국인의 사회적 문제 경험과 인식 조사’에서 나타난 개별 코호트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나. 사회불안 인식의 측정: 네트워크 접근

사회불안은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파악된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에는 사회불안의 여러 차원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24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들은 안전, 격차나 경쟁, 불공정 또는 불확실성, 적응 또는 도태에 대한 불안 인식과 정부 불신 등에 대해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물어본 것이다.⁴⁾

일반적으로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개념을 측정할 때 활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이론적인 틀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경우 이론에 기반하여 개념을 여러 차원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종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이론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을 때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개념을 구성하는 여러 특징을 다면적으로 측정한 후 주성분 분석을 통해 차원을 추출하고 이를 종합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측정 방식은 개별 요소들의 변화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의 상태 변화를 초래하거나 개념 상태의 변화가 개별 요소의 변화로 발현된다는 가정에 기초해 있다. 이 때문에 개념을 구성하는 다원적인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이 아니라 개념과 요소간의 관계가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네트워크 접근은 다차원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개념을 이해한다. 네트워크 접근은 최근 정신병리학이나 심리학 분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방법(Borsboom & Cramer, 2013; Dalege et al., 2018; Robinaugh et al., 2019)으로 성격, 심리, 태도, 신념 등과 같은 심리적 구성물을 상호작용하는 구성 요소들의 체계로 보고 요소들간의 연결 구조와 상호작용의 강도, 그리고 방향 등에 주목한다(Isvoranu & Epskamp, 2023). 즉 측정 개념을 구성 요소들간 관계망의 구조와 속성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는 측정 개념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념의 상태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안에서 구성 요소들간 연결 구조의 변화가 측정 개념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전제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접근은 변수간의 의존관계를 파악하고 시각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네트워크에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심 요소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특히 이론적인 기반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다차원 데이터의 구조를 탐색

4) 사회불안 인식을 측정한 24개 문항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이현주 외(2023)의 3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고 인과적 가설을 도출하는 탐색적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된다(Epskamp et al., 2018; Borsboom et al., 2021; Ryan et al., 2022). 이 글에서는 네트워크 접근을 통해 코호트별 사회불안 인식을 측정하고 그 특징을 파악한다.⁵⁾

3 사회불안 인식의 중심 요소

심리적 요소들의 네트워크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되며 노드는 관찰된 변수를, 엣지는 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 지수는 네트워크 내 노드의 역할을 나타낸다. 특히 강도중

심성(strength centrality)은 다른 노드들과의 직접적인 연결 강도의 합으로 그 값이 크다는 것은 사회불안 인식 네트워크 내에서 해당 노드의 직접적인 영향력이나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노드들은 측정 개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표 2>는 코호트별로 사회불안 인식 네트워크의 강도중심성 값을 기준으로 1순위부터 7순위까지를 정리한 것이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빈부격차 심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또는 정부 불신, 불확실한 미래 등은 코호트에 상관없이 중심성 지수 순위에서 상위에 있다. 이는 공통적으로 사회불

[표 2] 코호트별 사회불안 인식의 중심 요소: 강도중심성 순위 1~7위

순위	1986~2001년생 19~34세	1976~1985년생 35~44세	1968~1975년생 45~54세	1957~1967년생 55~64세	1947~1956년생 65~74세
1	정부 위기관리 불신	정부 위기관리 불신	조직 적응 불안	정부 위기관리 불신	범죄피해 두려움
2	빈부격차 심화	빈부격차 심화	빈부격차 심화	정부 불신	빈부격차 심화
3	미래 희망 없음	미래 불확실	미래 불확실	범죄피해 두려움	미래 불확실
4	취업불황 지속	편법사회	정부 불신	미래 불확실	정보 소외
5	연출사회	정부 불신	편법사회	편법사회	조직 적응 불안
6	미래 불확실	집단이기주의	범죄피해 두려움	조직 적응 불안	집값 감당
7	범죄 피해 두려움	조직 적응 불안	연출사회	빈부격차 심화	법집행 불공정

주: 정부 위기관리 불신(정부의 위험-위기관리 능력을 믿을 수 없다), 빈부격차 심화(우리 사회의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정부 불신(정부가 하는 일은 믿을 수 없을 때가 많다), 미래 희망 없음(나에게 미래는 희망이 없어 보이고, 상황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취업불황 지속(현재의 취업불황이 당분간 지속되어 질 것이다), 미래 불확실(우리 사회의 미래는 막연하고 불확실해 보인다), 범죄피해 두려움(범죄의 대상이 될까 봐 두려움을 느낀다), 조직 적응 불안(직장 등 소속된 조직에 적응하기 어려울까 봐 불안하다), 연출사회(우리 사회에서는 돈 없고 연출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들다), 편법사회(우리 사회에서는 원칙보다는 편법이 더 잘 통한다), 집단이기주의(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로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 정보 소외(다른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는 정보를 나만 모르게 될 것 같다), 집값 감당(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뛰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변수.

출처: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이현주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1. <표 4-7>을 재구성함.

5) 방법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이현주 외(2020)의 제4장 제1절을 참고하기 바란다.

안 인식에 대한 해당 변수의 영향이 큰 핵심 요소임을 의미한다. 반면 코호트별로 다른 특징도 발견된다. 우선 1986~2001년 출생 코호트에서는 취업 불황이 지속될 것이고, 미래에 희망이 없으며, 돈이나 연줄 없이는 성공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사회불안 인식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나타났다. 1976~1985년생 코호트의 경우에는 우리 사회는 편법이 잘 통하고 집단이기주의가 심하다는 인식이 불안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 1968~75년생 코호트는 조직 적응에 대한 불안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1947~1956년생 코호트는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과 정보로부터의 소외, 그리고 집값에 대한 부담 등이 불안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회불안 인식이 이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 또는 과업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 있는 1986~2001년생 코호트에 취업불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은 다른 요소들보다 크게 다가올 것이다. 양육과 돌봄의 이중 부담을 안고 있는 1968~75년생 코호트의 경우 조직 적응이나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은퇴 후 삶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1947~1956년생 코호트에서는 집값이 중요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범죄피해에 대한 불안과 정보로부터의 소외에 대한 불안은 이들의 사회적 지위 면에서의 취약성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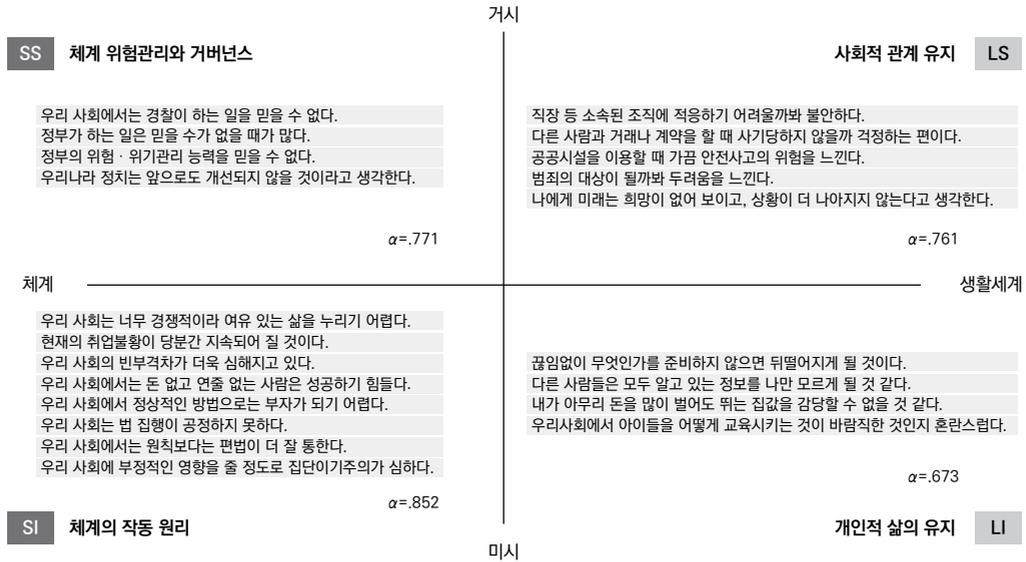
4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 인식 수준

가.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의 구분

다음으로 사회불안 인식을 개인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의 불안과 사회 체계에 대한 불안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 요소의 구분은 사회적 불안을 측정된 24개의 문항 중에서 질문이 제도와 집합적인 가치와 규범을 묻고 있다고 판단되면 체계 불안 요소로, 개인적 삶에 대해 묻고 있다고 판단되면 생활세계의 불안 요소로 분류하였다. 체계 불안 요소 문항은 대체로 질문이 ‘우리 사회는’ 또는 ‘정부는’ 등으로 시작하는 문항들이며, 생활세계 불안 요소 문항은 ‘나는’이라는 주어가 붙을 수 있는 문항들이다. 24개의 사회적 불안 측정 문항 중 15개 문항이 체계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9개 문항이 생활세계 불안을 나타내는 문항으로 분류되었다. 이후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 주성분 요인 추출 방법과 배리맥스 회전 방법을 사용하여 차원을 축소하였다. 이 과정에서 차원으로 묶기에 적절하지 않은 3개 문항이 제외되었다.⁶⁾ 최종적으로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은 각각 두 개의 차원으로 축소되었으며 4개의 차원은 체계 위험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불안, 체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불안, 사회적 관계 유지 불안, 그리고 개인적 삶의 유지 불안 등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림 1]

6) 차원 축소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현주 외(2023)의 보고서 pp. 101-103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1]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의 분석틀



출처: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이현주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4. [그림 4-1] 재인용.

은 각 차원의 하위 문항과 문항의 내적 신뢰도를 나타낸 것이다.

나. 코호트와 체계-생활세계 불안 관계

사회적 불안을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으로 개념화하여 분석한 결과를 코호트별로 비교해 보면 '체계의 작동 원리에 대한 불안'이 모든 코호트에서 다른 불안 차원보다 높다. 즉 빈부격차, 취업불황, 연출사회, 불공성과 편법, 집단이기주의 등과 같은 현 사회 체계를 움직이는 규칙들에 대한 불안 인식이 다른 불안 차원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다음으로

불안 수준이 높은 차원은 코호트별로 상이한 특성이 발견된다. 상대적으로 최근 출생 코호트인 1986~2001년생 코호트와 1976~1985년생 코호트에서는 개인 삶의 유지 관련 불안이 높은 반면 1968~1975년생 코호트와 1957~1967년생 코호트에서는 위협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불안이 높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에는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불안 수준을 묻는 단일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문항과 체계, 생활세계 불안의 하위 차원이 전반적인 사회불안 수준에 대한 인지 문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코호트에서는 미시적 생활세계 영역의 불안이,

[표 3] 코호트별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 수준

	생활세계				체계			
	거시		미시		거시		미시	
	사회관계 유지 불안		개인 삶의 유지 불안		위험관리와 거버넌스 불안		체계 작동 원리 불안	
	평균	상관계수	평균	상관계수	평균	상관계수	평균	상관계수
1986~2001년생	3.44	.331**	3.73	.426**	3.50	.336**	4.06	.398**
1976~1985년생	3.40	.350**	3.74	.479**	3.38	.418**	4.12	.442**
1968~1975년생	3.42	.348**	3.70	.415**	3.81	.404**	4.10	.506**
1957~1967년생	3.32	.314**	3.63	.425**	3.72	.454**	4.07	.486**
1947~1956년생	3.02	.109**	3.28	.232**	3.21	.201**	3.53	.282**
전체	3.35	.331**	3.65	.440**	3.55	.375**	4.01	.468**
집단 간 차이 검증 결과	1,3)2,4)5		2,1,3)4)5		3)4)1)2)5		2,3,4,1)5	

주: 평균은 4개 하위 영역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평균값인데, 집단 간 차이 검증은 샘플 수가 다르고 등분산가정을 만족시키지 못하여 Games-Howell 검증을 한 결과임. 상관계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 5점 척도(1=전혀 불안하지 않다~5=매우 불안하다)로 질문한 문항과 4개 하위 영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상관계수 값은 Pearson 값임.

출처: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이현주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16. <표 4-9>와 p. 117. <표 4-10>을 재구성함.

1970년대 중반 이전에 출생한 코호트에서는 미시적 체계 영역의 불안에서 상관관계가 더 강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1970년대 중반 전후로 이전 출생 코호트는 체계와 관련된 불안 수준이 높고 반면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 코호트는 생활세계와 관련된 불안 수준이 높고 전반적인 사회불안 인식과의 관련성도 같은 패턴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 위기 시점에 20~30대를 보낸 1975년 이전 출생 코호트의 생애 경험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교육에서 노동 시장으로의 이행기에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체계가 붕괴되는 사건을 경험한 경우 체계, 특히 거시적인 측면에서 위험관리와 거버넌스에 대한 위험이 크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외환위기나 금융위기와 같은 체계 붕괴의 직접적인 경험은 비켜 갔지만 이후 체계의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생활세계로 침투되는 상황을 경험한 1975년 이후 코호트의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세계에서의 불안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의 설명 요인

사회불안 인식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특징과 박

탈, 차별, 사회적 사건, 복지 수혜 등과 같은 생애 과정에서 겪은 직간접적인 경험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변금선, 이해림, 2023; 이현주 외, 2019). 또한 미시적인 수준에서 개인의 심리적 불안 상태는 사회불안 인식의 원인이며(이현주 외, 2022), 거시적인 수준에서 사회에 대한 신뢰 또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최인철, 김범준, 2005). 이러한 요인들이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을 설명하는 데 코호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았다.

[그림 2]는 코호트별로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의 4개 하위 차원과 여타의 설명 요인들 간의 관계를 보여 준다. 그림에서 노드는 측정 변수를, 엷지는 노드 간의 부분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노드 간에 연결이 없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조건부 독립을 의미한다. 엷지의 굵기는 두 노드 간 관계의 강도를 나타내고, 푸른색 엷지는 정의 관계를, 붉은색 엷지는 부의 관계를 나타낸다. 네트워크 시각화는 노드들이 겹치지 않으면서도 서로 강하게 연결된 노드들을 가깝게 배치하도록 프루터먼레인골드(Fruchterman-Reingold) 알고리즘(Fruchterman and Reingold, 1991)⁷⁾을 사용하였으며, 코호트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노드의 위치를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그림 2]를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발견된다. 우선 체계와 생활세계 불안의 4개 차원은 매우 강한 연결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는 어느 한 차원의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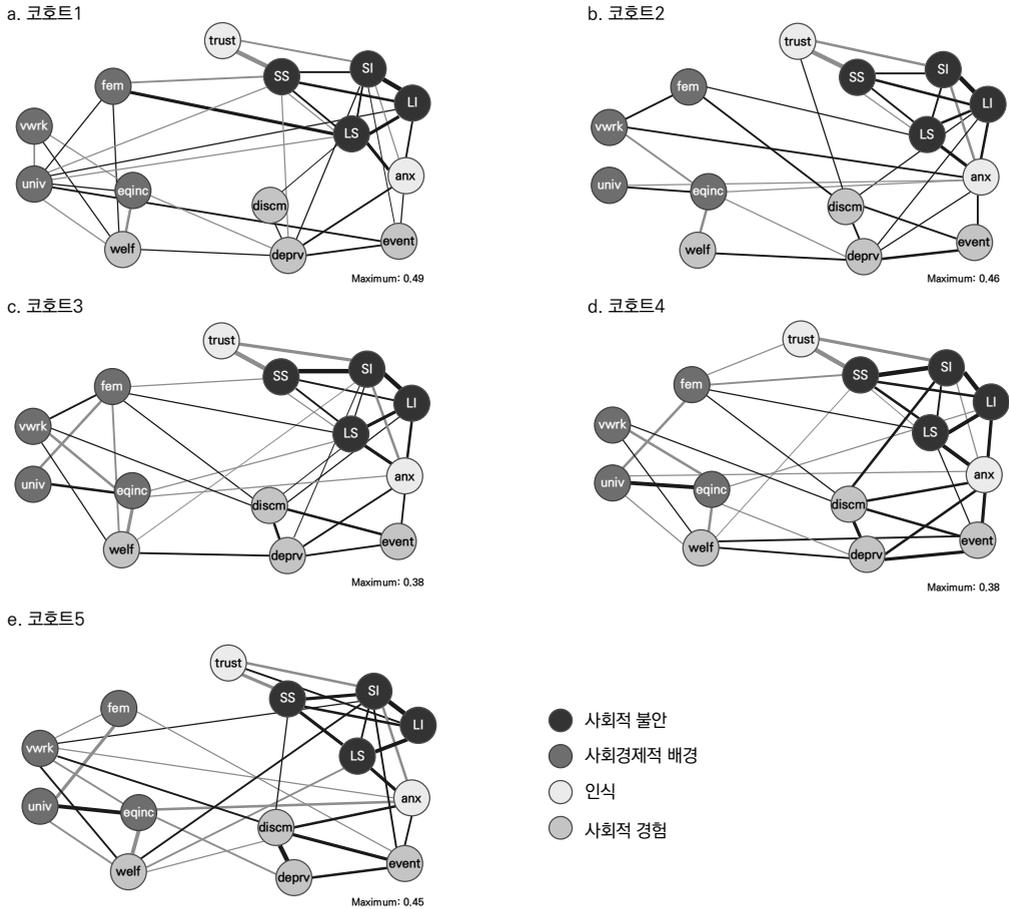
안 증가가 다른 차원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강한 상호 연결 관계는 특정 불안 차원에 대한 이해로는 사회불안 인식의 동학을 읽어 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모든 코호트에서 신뢰는 체계의 불안과 부의 상관관이 있으며, 심리적 불안은 생활세계의 불안과 정의 상관관이 있다. 즉 체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신뢰 문제를, 생활세계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심리적 불안을 줄이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코호트별로 사회불안 영역과 설명 요인들 간의 관계 구조를 살펴보면 여러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947~1956년생 코호트를 제외하고는 여성과 사회관계 유지 불안의 관계가 모두 의미가 있다. 특히 가장 젊은 코호트에서 성과 사회관계 유지 불안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가구소득은 1968~1975년생 코호트의 경우 사회관계 유지 불안과, 1957~1967년생 코호트의 경우 개인 삶의 유지 불안과 부적인 관련이 있다. 불안정 근로는 대체로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개인의 심리적 불안, 차별 경험, 복지 수혜 경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사회불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탈, 차별, 사회적 사건 경험은 대체로 심리적 불안을 통해 생활세계 불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차별 경험은 코호트별로 사회적 불안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

7) 프루터먼레인골드 알고리즘에 의한 네트워크 시각화에서는 노드의 상대적 위치, 예를 들어 노드가 네트워크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주변에 있는가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그림 2] 코호트별 사회불안 인식과 설명 요인 네트워크



주: SS-거버넌스 불안(체계-거시), SI-체계의 작동 원리 불안(체계-미시), LI-개인 삶의 불안(생활세계-거시), LS-사회관계 불안(생활세계-거시), trust-사회적 신뢰, anx-심리적 불안, fem-여성, vwrk-불안정 노동, univ-대졸, eqinc-균등화가구소득, discm-차별 경험, deprv-박탈 경험, event-사회적 사건 경험, welf-정부 지원 수혜 경험.

출처: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이현주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21. [그림 4-5] 재인용.

는데, 연령이 높은 코호트에서는 체계 불안을 높이는 쪽으로,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는 생활세계 불안을 높이는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한 차별 경험은 여성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1976~1985년생과

1968~1975년생 코호트에서 여성은 차별 경험을 통해 개인 삶의 유지 불안과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1957~1967년생 코호트에서는 체계 작동 원리에 대한 불안과 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성

과 연결된 차별 경험이 미시적 수준에서 사회불안을 높이지만 코호트별로 사회불안을 야기하는 영역이 다를 수 있다.

5 나가며

우리 사회의 사회불안 인식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전의 사회불안 인식에 대해서는 주로 고용 불안이나 생계 불안과 같은 사회경제적 불안을 중심으로 측정하고 연구해 왔다면 이 글에서는 사회불안을 체계와 생활세계 변화와 연결하여 보다 포괄적인 사회불안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사회불안 인식을 여러 구성 요소의 종합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구성 요소들의 관계망을 통해 사회불안 인식의 기저에 있는 핵심 요소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의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코호트 공통으로 빈부격차 심화는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불신 또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사회불안의 중요 요소라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한국은 다양한 위기와 재난, 위험이 발생했을 때마다 정부가 이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정부의 위기관리에 대한 요구가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누적되는 일상에서의 정부의 위기관리

실패 경험은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과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불안을 증폭시킨다. 따라서 심각한 수준의 사회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성공적인 위기관리의 경험들이 쌓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코호트별로 사회불안 인식의 특징이 상이하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생애주기와 밀접히 관련된 사회적 역할 및 규범, 취약성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코호트별로 관리, 통제해야 할 위험이나 불안이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취업불황이나 연금사회에 대한 불안이 높은 청년 코호트(1968~2001년생, 19~34세)의 경우 취업 지원과 함께 공정한 고용 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편법사회로 인한 불안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장년 코호트에 대해서는 법적 정의와 안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삶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춤으로써 이들의 사회불안을 약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범죄피해와 소외에 대한 불안이 큰 노년 코호트에 대해서는 범죄 예방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에 우선순위를 둬으로써 이들의 사회불안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회불안의 핵심 요인이 다른 코호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정교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사회불안을 설명하는 네트워크의 구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경제적 지위와 사회적 경험,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불안과 사회적

불안의 하위 차원들은 서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이는 특정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이 차별, 박탈, 사회적 위험 사건 경험에 더 취약하며 심리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불안한 중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소득은 차별 경험, 박탈 경험, 사회적 사건 경험과 정적인 연결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사회적 불안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과적인 관계는 아니더라도 이들 간에 불안을 강화하는 연결고리가 작동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불안을 증폭시키는 요소들 간의 연결을 완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사회불안 네트워크 구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사회적 불안에 대한 네트워크 접근이 갖는 중요한 함의는 이러한 불안의 구조와 과정들이 상호 연결된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우선 3개 년간 서로 다른 대상을 조사한 자료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자료 조사 시점과 조사 방식의 차이를 최대한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분석 결과의 오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추후 사회불안 인식을 측정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이용한 검증을 거쳐 분석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코호트가 유사한 생애주기와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 내적인 동질성

을 갖는 집단이지만 코호트 내에 계층적 차이나 다양한 자원과 경험의 차이로 인한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사회불안과 관련 요인들 간의 관계를 드러내었지만 횡단자료의 사용으로 요소 간의 인과관계는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역시 사회불안 인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이에 필요한 시계열 자료의 축적을 통해 추후 규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문조, 박형준. (2012). 불확실성의 시대, 불안한 한국인. **사회와 이론**, 21, 611-643.
- 남춘호. (2014). 압축근대와 생애과정의 구조 변동. **지역사회연구**, 22(2), 1-28.
- 배럿, 리사 펠드먼. (2018). **감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최호영 옮김). 교보문고.
- 변금선, 이해림. (2023). 청년의 사회적 불안 인식 격차: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생애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30(2), 127-156.
- 안준기. (2022). **행정DB를 이용한 고령자 노동시장 특성과 지원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 엠브레인 공식 블로그. (2016. 5. 25.).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불안감', 몇 년째 높은 수준에서 유지. <https://m.blog.naver.com/mkresearch/220719145055>
- 이현주, 곽윤경, 강상경, 노영주, 전지현. (2019).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전지현, 구혜한, 변금선. (2020). **한국의**

-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청중년의 사회적 불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주, 곽윤경, 이아영, 구혜란, 변금선, 전지현. (2023). **한국의 사회적 불안과 사회보장의 과제: 한국인의 사회적 불안 분석 종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인철, 김범준. (2005). **정보화시대의 사회적 불안의 특성과 변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최재식. (1999). 허버마스의 “생활 세계”와 “체계” 이론 및 이에 관한 사회·문화 현상학적 비판. **현상학과 현대철학**, 13, 184-220.
- 홍영오, 송관재, 박수애, 이해진, 이재창. (2006). 한국 사회의 사회적 불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2(1), 129-160.
- 황정미. (2022). 개인화 시대의 가족 변화. **젠더리뷰**, 67, 4-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orsboom, D., & Cramer, A. O. (2013). Network analysis: an integrative approach to the structure of psychopathology.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9, 91-121.
- Borsboom, D., Deserno, M. K., Rhemtulla, M. et al. (2021). Network analysis of multivariate data in psychological science. *Nat Rev Methods Primers* 1, 58. <https://doi.org/10.1038/s43586-021-00055-w>
- Dalege, J., Borsboom, D., van Harreveld, F., & van der Maas, H. L. J. (2018). The Attitudinal Entropy (AE) Framework as a General Theory of Individual Attitudes. *Psychological Inquiry*, 29(4), 175-193. DOI: 10.1080/1047840X.2018.1537246
- Epskamp, S., Borsboom, D., & Fried, E. I. (2018). Estimating psychological networks and their accuracy: A tutorial paper. *Behavior research methods*, 50(1), 195-212. <https://doi.org/10.3758/s13428-017-0862-1>
- Fruchterman, Thomas M. J. and Edward M. Reingold. 1991. “Graph Drawing by Force-Directed Placement.” *Software: Practice and Experience* 21(11): 1129-64.
- Isvoranu, A.-M., & Epskamp, S. (2023). Which estimation method to choose in network psychometrics? Deriving guidelines for applied researchers. *Psychological Methods*, 28(4), 925-946. <https://doi.org/10.1037/met0000439>
- Robinaugh, D. J., Hoekstra, R. H. A., Toner, E. R., & Borsboom, D. (2019). The network approach to psychopathology: A review of the literature 2008-2018 and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ical Medicine*. Advance on line publication. <https://doi.org/10.1080/01559982.2019.1584953>
- Ryan, Oisín, Bringmann, Laura F. & Noémi K. Schuurman (2022) The Challenge of Generating Causal Hypotheses Using Network Model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9:6, 953-970, DOI: 10.1080/10705511.2022.2056039
- Zung, William WK. (1971). A Rating Instrument for Anxiety Disorders. *Psychosomatics* 12(6): 371-379.

Comparing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cross Different Cohort Groups

Koo, Hwaran

(Institute for Social Development and Policy Research)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core factors underlying the widespread perception of social insecurity in Korean society across different birth cohorts. It distinguishes between perceived social insecurity rooted in system and life-world levels, exploring their distinct characteristics and explanatory factors across cohorts.

The analysis reveals that across all cohorts, the widening wealth gap, distrust in the government's crisis management abilities, or general distrust in the government are key contributors to perceived social insecurity. Furthermore, concerns about the system's functioning rules are prevalent across all cohorts.

Differences emerge between cohorts. For those born before the mid-1970s, concerns related to system factors are more strongly associated with overall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whereas for those born after the mid-1970s, those of life-world factors are more closely linked.

Perceived social insecurity is a pressing policy concern due to its potential to impact individual lives and social systems. To mitigate this, policy responses should prioritize addressing the core factors that exacerbate perceived social insecurity and aim to weaken the interconnectedness of socioeconomic status, psychological distress, negative social experiences,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social insecurity perception through comprehensive social insecurity reduction policies.